

# 10월 27~30일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Connected' 24편 상영작 소개

Introducing the 24 films  
of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Connected'

'Connected' 주제로 10월 27~30일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온라인(네이버 TV) 상영관에서 만나요



아시아 유일의 공식 건축영화제,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이하 건축영화제)가 10월 27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올해 14회를 맞은 건축영화제는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15개국 총 24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온라인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채널에서 구독 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보다 늘어난 상영기간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더 많

은 이들이 건축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축영화제의 슬로건은 'Connected'로,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함을 표현한다.

개막작으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안도 다다오가 전하는 열정 가득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녹아든 <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2020, 시바타니 마리코 감독)>가 상영된다.

마스터&마스터피스 섹션에서는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건축 거장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적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다.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탐구하는 어반스케이프 섹션은 개발과 재생을 키워드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계획과 이에 따르는 문제 등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데 주목하고,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스페셜 섹션은 더 나아가 기술로 연결되는 세상, 기술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법을 건축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준비됐다. 건축을 다양한 영역으로 연결하는 비온드 섹션에서는 장소가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이자 중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영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월드 프리미어 2편, 아시아 프리미어 10편, 코리아 프리미어 2편 등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개봉작과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들로 한층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상영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영화제 누리집(www.siaff.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육해민 기자

## 상영 및 토크 일정 계획

상영일	상영 시간	1관 상영작 (영문)	RT	GT / Program Event	Rate	Subtitle
10/27 (목)	20:00	개막작_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Tadao Ando: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58'		G	NE
10/28 (금)	11:00	또 다른 도시(An Other City)	58'		12	NE
	12:20	잃어버린 릴리 라이히의 공간([On set with] Lilly Reich) + 전함 베를린(Battleship Berlin)	73'		12	E/NE + NE
	14:00	부유하는 욕망의 유령들(A Pile of Ghosts) + 딜(A Deal)	78'		15	E/NE + KE
	15:50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다른 것(The Old, the New and the Other) + 건물은 무고하다(The New Front Got a Bum Rap) + 불모지(Wasteland)	88'		15	KE + NE
	18:00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ost Architect Forum)			-	
10/29 (토)	10:30	또 다른 도시(An Other City)	58'		12	NE
	11:50	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Tadao Ando: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58'	상영 전	G	NE
	13:50	발다우라: 친환경적인 격리 생활(Valldaura: A Quarantine Cabin)	79'	상영 후	G	E
	16:10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다른 것(The Old, the New and the Other) + 건물은 무고하다(The New Front Got a Bum Rap) + 불모지(Wasteland)	88'	상영 후	15	KE + NE
	18:40	안녕, 가든테라스(Farewell, Garden Terrace) + 대신맨션: 영등포 건축문화유산(Daeshin Mansion: Yeongdeungpo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62'	상영 후 Special Talk	G	KE + NS
10/30 (일)	10:30	애프터 네이처(After Nature)	61'		G	E/NE
	12:00	부유하는 욕망의 유령들(A Pile of Ghosts) + 딜(A Deal)	78'		15	E/NE + KE
	13:50	고양이들의 아파트(Cats' Apartment)	88'	상영 후	G	KE
	16:30	일층 이층 삼층(Three Floors)	120'	상영 후	15	NK
	19:30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위한 계획(Plan for Buenos Aires)	80'		12	NE

상영일	상영 시간	2관 상영작 (영문)	RT	GT / Program Event	Rate	Subtitle
10/27 (목)	20:00	개막작_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Tadao Ando: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58'		G	NE
10/28 (금)	11:00	애프터 네이처(After Nature)	61'		G	E/NE
	12:30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위한 계획(Plan for Buenos Aires)	80'		12	NE
	14:20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건설기(Building Bastille)	76'		12	E/NE
	16:10	막스 리셀라다와 12개의 건물들(Max Risselada: Life, Works & 12 Buildings)	97'		12	NE
	18:20	벨샤스 305번지(305 Bellechasse)	104'	상영 후	12	
10/29 (토)	10:30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건설기(Building Bastille)	76'		12	E/NE
	12:10	섬이없는지도(Map without Island)+ 평화가 사람 속을 걸어다녀 (Peace Is Walking through the People)	114'	상영 후	12	KE
	15:00	벨샤스 305번지(305 Bellechasse)	104'	상영 후	12	E/NE
	17:35	스마트한 도시를 위하여(Smart Cities)	44'	상영 후	G	E
	19:20	알바루 시자: 콘크리트의 미학(Concrete Landscape)	72'		12	NE
10/30 (일)	10:30	잃어버린 릴리 라이히의 공간([On set with] Lilly Reich) + 전함 베를린(Battleship Berlin)	73'		12	E/NE + NE
	12:10	알바루 시자: 콘크리트의 미학(Concrete Landscape)	74'	상영 후	12	NE
	14:20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A Tale of Old Cities)	82'	상영 후 Special Talk	G	KE
	17:00	발다우라: 친환경적인 격리 생활(Valldaura: A Quarantine Cabin)	79'	상영 후	G	E
	19:20	막스 리셀라다와 12개의 건물들(Max Risselada: Life, Works & 12 Buildings)	97'		12	NE



**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Tadao Ando: Words for the Next Generation**  
 2020 | 58' | Japan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시바타니 마리코 Mariko Shibatani



유명한 현대 건축사 중 한 명인 알바로 알토의 삶과 작업에 대한 매력적인 여행과도 같은 영화다. 그의 배우자였던 아이노 알토와의 친밀한 사랑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며, 영화는 그들의 창의적 작업 과정과 세계 곳곳에 위치한 아이콘과 같은 건축물들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건설기**  
**Building Bastille**  
 2021 | 76' | Canada | Color, B&W | 12 | Asian Premiere  
 Dir. 레이프 칼도어 Leif Kaldor



1982년, 당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은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자리에 오페라 극장을 짓기 위해 블라인드 공모를 열었다. 심사위원단은 그 경쟁 최고의 디자인으로 미국의 저명한 건축사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을 뽑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디자인은 캐나다인 카를로스 오토의 작품이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고, 실제로 그는 당시 아무런 경력도 없었다. 영화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기회의 포착으로 이어진, 코믹하면서도 극적으로 얽혀있는 현대사 최대의 사건을 들려준다.

**알바루 시자: 콘크리트의 미학**  
**Concrete Landscape**  
 2022 | 72' | Brazil | Color | 12 | Asian Premiere  
 Dir. 루이스 페라스, 라우라 아르티가스  
 Luiz Ferraz, Laura Artigas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 있는 이베레 카마르고 재단 미술관, 그리고 2008년에 출범한 이 기관의 본사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설계한 알바루 시자의 포르투갈 포르토에 위치한 사무실. 영화는 이 두 곳을 향해간다. 도루강가에서 알바루 시자는 담배를 연이어 피우며 미술관 설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벨렝에서 태어난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뿌리 내린 브라질과의 정서적 관계가 어떻게 모더니즘, 브라질 대중 음악 또는 소설들에 영향을 받았는지 들려준다.

**전함 베를린 Battleship Berlin**  
 2021 | 40' | Germany | Color, B&W | 12 | Asian Premiere  
 Dir. 네이션 에디 Nathan Eddy



베를린의 브루탈리즘 건축양식 유산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베를린 사리테 대학병원은 악명 높은 이전 동물 실험 시설을 철거하고 싶지만, 강경한 갤러리스트, 건축사 또는 보존주의자들은 이 독특하기 짝이 없는 건축물을 역사적 건물로 지정하여 재사용하고자 한다.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2020 | 88' | Korea | Color | G  
 Dir. 정재은 Jeong Jae-eun



서울 동쪽 끝, 거대한 아파트 단지. 그곳은 오래도록 고양이들과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뛰놀고 사랑과 기쁨을 주었던 모두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곧 철거될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계속 살고 싶냐고." 고양이들과 사람들의 행복한 작별을 위한 아름다운 분투가 시작된다.

**대신맨션: 영등포 건축문화유산**  
**Daeshin Mansion: Yeongdeungpo Architecture Cultural Heritage**  
 2019 | 15' | Korea | Color | G  
 Dir. 김창길 Kim Chang-Gil



1970년대 건축물인 대신시장 상가 아파트를 통해 근대화 시기 주거 해결의 대안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주택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의미를 살펴본다.

**막스 리셀라다와 12개의 건물들**  
**Max Risselada: Life, Works & 12 Buildings**  
 2021 | 97' | Netherlands | Color, B&W | 12 | Asian Premiere  
 Dir. 요른 코넨인 Jorn Konijn



건축사이자 건축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 그리고 델프트 공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기도 한 막스 리셀라다에 관한 이야기. 스미슨 부부의 런던 이코노미스트 빌딩에서부터 인도 아마다바드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까지, 영화는 막스 리셀라다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12개의 건물에 대한 매력적인 투어로 관객들을 이끈다.

**잃어버린 릴리 라이히의 공간**  
**[On Set with] Lilly Reich**  
 2022 | 33' | Spain | Color, B&W | 12 | Asian Premiere  
 Dir. 아벨리나 프랏 Avelina Prat



모더니즘의 선구적인 여성이었던 릴리 라이히의 업적, 그리고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당시 그녀의 직업이 가졌던 매력적 한계와 명성에 관해 탐구하는 작품.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위한 계획**  
**Plan for Buenos Aires**  
 2022 | 80' | Argentina | Color, B&W | 12 | Asian Premiere  
 Dir. 헤라르도 파네로 Gerardo Panero



1929년, 르 코르뷔지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여 현대 건축에 대한 일련의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위한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여행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르 코르뷔지에는 자신이 제안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박적으로 발전시켰다.

**안녕, 가든 테라스**  
**Farewell, Garden Terrace**  
 2021 | 48' | Korea | Color | G  
 Dir. 박진현 Park Jinhyun



40년 전, 시대를 풍미했던 한 건축사가 새로운 실험을 펼친 집이 있다. 예술의 전당으로 유명한 고 김석철 건축사가 설계한 대구의 '가든테라스'다. 19세대가 작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내 집 앞의 넓은 마당을 간직했던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 EBS 다큐프라임 <도시예찬> 3부작 중 제2부인 <안녕, 가든테라스>는 한 건축사의 작가주의적 주거 실험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공간의 다양성이 사람과 도시에 갖는 의미를 탐구한다.

**섬이없지도 Map without Island**  
 2021 | 91' | Korea | Color | 12  
 Dir. 김성은 Kim Sungeun



일상을 담은 영화를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지만, 난민 심사에 떨어진 후 야스민은 제주를 떠나게 된다. 그녀가 남긴 편지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마주한 것은 곧 사라질 풍경들과 돌아올 곳을 잃은 존재들이 만들어낸 지도이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다른 것**  
**The Old, the New and the Other**  
 2022 | 15' | Korea | Color, B&W | 12  
 Dir. 세바스티앙 시몽 Sébastien Simon



낯선 사람이 마을에 도착한다. 그 마을은 미포다. 부산 해운대 바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어촌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 또 다른 도시 An Other City

2021 | 58' | Sweden | Color | 12 | Asian Premiere

Dir. 라스무스 바에른 Rasmus Waern



21세기로의 전환기는 스웨덴 도시계획의 황금기였다. 스톡홀름의 함마비 쇼스타트 지역은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한 모델이 되었다. 이 새로운 계획의 최전선에는 건축사 안 잉헤가 있었다. 영화는 그의 경력을 따라가며, 도시계획이 전통적인 도시를 되돌아보고 그 특징들을 통합하려 했던 시대를 포착한다.

### 평화가 사람 속을 걸어다니네

#### Peace Is Walking through the People

2021 | 23' | Korea | Color | G

Dir. 함유선 Hahm You-seon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평화가 공존하는 강정마을은 오늘도 어수선하다. 같은 공간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강정마을은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

### 부유하는 욕망의 유령들

#### A Pile of Ghosts

2021 | 70' | Austria, Singapore | Color | 15 | Korean Premiere

Dir. 엘라 라이델 Ella Raidel



도시화의 유령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호텔은 도시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철거 예정이다. 소유주 찰스는 자신이 어떤 여성 방문자와 함께 할리우드 고전영화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자본주의적 허구에 따라 도시가 온전히 투기로 건설되는 현대 중국에서, 건설 노동자, 투자자, 부동산 중개인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불편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 딜 A Deal

2022 | 8' | Korea, USA | Color | 12 | World Premiere

Dir. 유지혜 Yoo Ji H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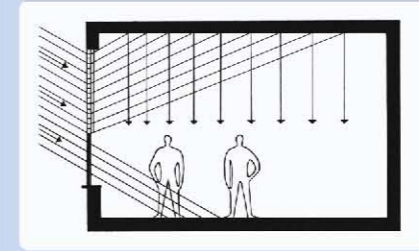
일찍이 성공한 삶, 외제 차, 그리고 내 집. '영 앤 리치'한 삶을 좇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실로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호의가 아닐까? 비록 그것이 딱 한 점사일 지라도.

### 건물은 무고하다

#### The New Front Got a Bum Rap

2021 | 39' | Austria | Color, B&W | 15 | World Premiere

Dir. 크리스티안 카르스트 Christian Karst



직장인의 사회적 모습과 사무실에서의 일상적인 상황, 그 행동 영역을 시간적, 내적 성찰로 반영하며, 이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시 과거로 확장하는 작품. 대화로 이루어진 형식은 미래의 일자리와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21세기 직장의 사무실 건물 및 건축 조건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 일층 이층 삼층 Three Floors

2021 | 120' | Italy, France | Color | 15

Dir. 난니 모레티 Nanni Moretti



공포와 분노가 공존을 지배하는 듯한 세계에서, 부모, 형제, 이웃이 되는 것의 고충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은 로마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다. 남자들은 고집에 갇혔지만, 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분열된 삶을 수선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을 마침내 그리고 차분하게 전하려 한다.

###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 A Tale of Old Cities

2021 | 82' | Korea | Color | G

Dir. 조은성 Jo Eunseong



인천의 원도심인 중구는 일제 강점기 시절 최초의 개항이 이루어진 곳이며 근대건축물들과 적산가옥, 철도, 해운, 공항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은 개발과 재건축/재생의 두 개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 불모지 Wasteland

2021 | 34' | Korea | Color | 15

Dir. 이탁 Lee Tack



화천댐은 자살한 남편의 시신을, 서암댐의 집 텃밭에 묻어달라 부탁한다.

### 벨샤스 305번지 305 Bellechasse

2022 | 104' | Canada | Color | 12 | Asian Premiere

Dir. 막심 플로르드 레퀴에

Maxime-Claude L'Écuyer



벨샤스 305번지는 파스타 공장이었던 건물에 작업실을 마련한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삶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점차 이곳은 재능과 명성을 지닌 예술가들의 은신처가 되었으며, 몬트리올 현대회화계의 숨겨진 보물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월, 70년 동안 이곳을 소유했던 쉬프 가족은 건물을 매각했다. 이제 벨샤스 305번지에서 예술가의 거처는 위태롭다.

### 애프터 네이처 After Nature

2022 | 61' | Denmark | Color | G | Asian Premiere

Dir. 에스테르 엘름홀트 Esther Elmholt



네 명의 저명한 과학자와 한 명의 예술가는 인간이 초래한 대량 멸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인류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한다.

### 스마트한 도시를 위하여 Smart Cities

2018 | 44' | Austria | Color | G

Dir. 클라우디아 지치, 페터 지치 Claudia Giczy, Peter Giczy



20세기 초에는 세계 인구의 10%만이 도시에 살았다. 오늘날 이 수치는 이미 50%에 달한다. 도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 도시 계획자들은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발다우라: 친환경적인 격리 생활

#### Valldaura: A Quarantine Cabin

2021 | 79' | Spain | Color | G | Asian Premiere

Dir. 마누엘 로가르 Manuel Lógar



전 세계에서 온 차세대 건축사들이 바르셀로나 콜세롤라 자연공원 한가운데에서 거주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 설계의 미래를 연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도래하면서, 학생들은 숲 한가운데 갇힌 채 상상도 하지 못한 자금자족의 문제를 겪으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